



양나희 작가가 '삶+풍경'을 주제로 만든 달력에 실린 2월 작품.



백준선 작가의 달력(왼쪽)과 정윤태 조각공원이 실린 남부대 달력. /최현배기자 choi@

광주·대구 사진작가 교류전 '달·빛 말걸기'

17 ~ 23일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정보나 작
'저탄장'

광주와 대구 사진작가들은 상대방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까. (사)한국현대사진가협회(이사장 임성국)가 17 ~ 23일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도시를 말하다 2016-달·빛 말걸기'를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광주가 달구벌을, 대구가 빛고개를 이야기하다'를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광주·대구 작가 교류전이다.

참여작가는 강지원, 김덕일, 김소영, 김인혜, 김영규 등 회원 17명과 대구 작가 4인성숙, 황인모씨 등이 참여해 40여 점을 선보인다.

광주작가들이 대구를, 대구 작가들이 광주를 렌즈에 담은 게 특징이다.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으로 시간·심리적으

로 한층 더 가까워진 양지역을 소재로 삼았다. 정형화된 이미지가 아닌 외부인 시각으로 바라본 광주·대구 속살을 만날 수 있다.

백영우 작가는 대구 근대거리를, 정보나 작가는 방치된 대구 반야월 저탄장을 촬영하며 근·현대가 어우러진 대구를 촬영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한국현대사진가협회는 사진·인문학 강좌, 정기 회원전을 가지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매년 '도시를 말하다'를 주제로 광주·대구·광주문화재단·건축·무등산 등을 담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해 교류전을 계기로 순회전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62-970-0753. /김용희기자 kimyh@

김해용

개인전



▶꽃길따라

22일까지 은암미술관

말을 소재로 풍부한 감수성을 작품에 담고 있는 김해용 한국화가가 22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순수라는 그리움'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파스텔풍 색채로 순수함을 담은 최선작 3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 주요 소재는 자연이다. 작가는 각박한 세상에서 절실히 그리운 것이 '순수'라고 이야기한다.

작품 '꽃길따라'는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백마가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꽃바람' 소재도 꽃길을 달리는 백마다.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순수함을 상징하는 백마가 등장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작품 '말은 달리고 싶다'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끝없이 질주해 가는 현실을 반영했다. 담 뒤로 절반쯤 보이는 말 얼굴 표정과 흰 없는 눈동자는 우리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꽃, 파란 보리밭, 노란나비 등을 통해 사람들이 풍부한 감성을 지속적으로 지니기를 희망한다.

김씨는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했고 현재 남동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르고 고른 작품 담아...화가들이 만든 달력



미술단체 '어울림' 달력

한국화 백준선 '겨울 밤' '보리밭' 계절별 작품 반영

서양화 양나희 작가 작품 SNS 올리면 증정 이벤트

문인화 단체 '목취회' 8월 회원전 작품 16점 실어

남부대 달력 '정윤태조각공원' 설치된 대표작 눈길



세밀화 그리기모임 '담쟁이' 달력

달력은 멋진 그림이나 풍경 사진을 실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다.

특히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달력은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작가들은 선물용 또는 홍보용으로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1년간 작품을 선보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엄선해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올해 지역 작가들은 어떤 달력을 제작했는지 소개해본다.

한국화에 서정적인 색채를 담고 있는 백준선 작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3점으로 달력을 채웠다.

올해 12월은 눈이 포근하게 쌓인 한적한 시골 마을을 그린 '겨울 밤'이다. 봄이 오는 3월에는 온통 초록색으로 채운 작품을 실었다. '보리밭이 보이는 풍경'은 매화꽃과 초록색 보리밭을 통해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한다. 또 7월에는 푸른바다를 소재로 한 '여름바다'를 배치해 시원함을 전해주고 10월에는 오곡이 여문 붉은 들판을 그린 '어느 가을'을 선보인다.

31일까지 지노갤러리(서구 차평동)에서 개인전을 여는 청년작가 양나희씨도 달력을 만들어 선물하고 있다. 양 작가는 우리 주변 풍경을 사실적 색채로 표현하며 정겨운 분위기를 작품에 담고 있다. 남부대에도 작품 일부를 실어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새해 1월은 눈 쌓인 지붕과 넉넉한 여백이 인상적인 '삶, 풍경' 시리즈다. 4월에 배치한 작품은 1월과 같은 구도이지만 눈 대신 푸른 잎파리를 볼 수 있다. 8월 작품은 피아노가 쏟아지는 골목길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고 11월은 '별이 빛나는 밤에'를 실어 늦가을 정취를 표현했다.

전시장을 방문해 작품 사진을 SNS에 올리

면 달력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문의 062-384-0500.

금봉 박행보 화백과 먹당 한상은 화백 제자들로 구성된 문인화 단체 '목취회'(회장 김기재)는 지난 8월 회원전을 열어 일찌감치 새해 달력을 만들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6점을 실었다. 새암 김은중 회원은 '그리고 바라보다'를 시작으로 모자간 따뜻한 사랑을 담은 왕일심 회원의 '함께라면!', 물고기를 사냥하는 두루리를 그린 정규화 회원의 '역지 사지' 등을 선보인다.

남부대학교가 제작한 달력에서는 지난 9월 문을 연 '정윤태조각공원'에 설치된 조각을 만날 수 있다. 남부대는 정윤태 전 조선태 미술대학장으로부터 작품 약 30점을 기증받아 공원을 만들었다.

달력에는 공원 전경사진을 비롯해 대표작들이 실려있다.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맞는 석조상 '함께해요-더 나은 미래'(1월), 여성들의 꿈과 희망을 표현한 '풍요한 나날89', '청해진의 꿈' 등이다.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용운씨가 제작한 달력도 눈에 띈다. 지난 1970년대 대학시절부터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어온 김씨는 올해 9월 생애 첫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광양 매화마을(1월), 섬진강변(3월), 고창 청보리밭(5월), 승주 주안호(11월), 신안 증도(12월) 등 시기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남도 곳곳을 담았다. 그밖에 세밀화 그리기모임 '담쟁이'와 미술단체 '어울림'도 달력을 통해 지난 1년 결과물을 선보인다.

양나희 작가는 "연말을 맞아 도록보다는 달력을 제작했다"며 "날짜를 볼 때마다 잠시라도 그림을 통해 여유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 10:00 ~ 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변선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28,000회 돌파공연! 450만 이상 관객 돌파!

대한민국 국회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국민연극

라이어 3탄

튀어!!
(원제 Funny Money)

“꿈같은 해프닝과 포복절도” 웃다가 **정말** **가장할수있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2016.12.16(금) ~ 25(일)

공연시간 : 평일 오후 7시30분 / 토, 일 오후 2시, 7시 ※ 2016.12.19(월) 공연 없습니다.

예약문의

1688-3820
(062)220-0541

에매처

인터파크·티켓링크

주최 | COSMO

주관 | LEGEND

후원 | 광주일보

www.극단코스모스.com

국민 명품 코믹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주연 **양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학로 창작연극 에매울 1위

광주빛고을시민관 대극장 2016.12.22(목)~25(금)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16.12.28(수)~31(토)

공연시간 평일 오후 7시30분 / 토, 일요일 오후 2시, 7시